

≧ 봉료보건요법

-지난호에 이어서-

자료제공: 봉료보건봉침연구회

제4장 경락과 주요혈

3. 경혈이란 무엇인가.

(2) 응용면에서의 분류

경혈을 응용면에서 분류하면 각 경락에 다같이 갖고 있지 않은 요혈 이외의 경혈, 경험혈로서의 기혈 및 아시혈이 있다.

① 요혈(要穴)

요혈이란 각 경락에 있는 임상적으로 동류의 경혈로서 성질이 서로 공통되고 임상적 가치가 높은 것들이다. 그리고 각 경락에는 오행혈인 정(井), 형(榮), 유(俞), 경(經), 합(合)과 원혈(原穴), 극혈, 낙혈(絡穴), 모혈(募穴), 유혈(兪穴) 등이 있다. 이들은 그 경락이 약화되었을 때 혹은 그 경락이 이상항진 되었을 때 운용되는 특히 중요한 경혈이다. 즉 경락관계에 있어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이론에 따라 대(對)경락적으로 운용된다. 각 경락의 시술이 다른 경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반응이 매우 강한 경혈이기 때문에 주요한 혈, 즉 요혈(要穴)이라고 한다.

② 각 경락에 다 같이 갖고 있지 않은 요혈

이것은 장부 기타 기관에 일반적으로 특효가 있다고 해서 응용되어 온 것으로 다음의 팔회혈(八會穴), 사총혈(四總穴) 등이 있다.

-팔회혈(八會穴):

회란 회집(會集)한다는 뜻으로 기가 이곳에 집합하는 곳이다. 따라서 각기 그 병에 특효가 있다고 인정되어온 혈들이다.

- 중완(中完) - 부회(腑會) : 육부의 기가 여기에 모이는 곳으로 위, 대장, 소장, 담, 방광, 삼초의 병에 잘 듣는다.
- 장문(章門) - 장회(臟會) : 육장의 기가 모이는 곳으로 심, 간, 신, 폐, 비, 십포의 병에 잘 듣는다.

- 양능천(陽陵泉) - 근회(筋會) : 주로 근의 이완, 경련, 종통 등에 잘 듣는다.
- 양보(陽輔) - 수회(髓會) : 골수병에 잘 듣는다.
- 격유(膈兪) - 혈회(血會) : 혈 부족 또는 부인병에 잘 듣는다.
- 대저 - 골회(骨會) : 골병에 잘 듣는다.
- 태연 - 맥회(脈會) : 맥의 박동에 이상이 있을 때 잘 듣는다.
- 전중 - 기회(氣會) : 호흡, 혹은 정신기능 등의 병에 잘 듣는다.

-사총혈(四總穴)

복부의 위장병에는 삼리혈이 좋고 요(腰), 배부의 병에는 오금에 있는 위중혈이 좋고, 두부와 후경부 통증이나 응결에는 손목에 있는 열결혈이 좋고 안면이나 눈의 질환에는 합곡이 가장 좋은 혈이다.

③ 요혈 이외의 경혈

요혈 이외의 일반 경혈은 국소적으로 그 부위에 있는 질환에는 물론이고 그 경락과 관계있는 장부나 기관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 이것이 압통점으로서 나타날 때가 많다. 그럴 때는 이 경혈에 치료함으로써 그 장부나 기관에 치효가 나타나는 수가 많다. 요혈을 대 경락적으로 의의가 있으나 일반경혈은 자기 경락에 대해서는 반응이 많으나 대 경락적 의의는 희박하다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4. 오행혈

오행설 중에는 "오행 중에 오행이 있다"라는 이론으로 세상에는 완전히 순수한 것은 없다고 하였다. 모두 다른 물질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어서 목(木)은 관념적으로는 순수한 것이나 실제로는 목은 다른 화(火), 토(土), 금(金), 수(水)를 내포하고 있고, 화도 마찬가지로 토, 금, 수, 목을 내포하고 있다. 경락에서도 간(肝), 담경은 목이지만 그 중에 화, 토, 금, 수의 성질이 내포되어 있고, 금성인 폐, 대장경도 수,



목, 화, 토의 성질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한 경락의 성질은 그 경락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 하나의 경혈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금경인 폐경을 예로 들면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 11혈 중 목경의 성질은 소상이라는혈에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경혈은 기의 문호이므로 폐경 중에 존재하는 간 기의 문호는 소상혈이 된다. 따라서 심기(心氣)의 문호인 태연, 폐기의 문호는 경거로 되어 있다. 이 경거혈은 금경 중의 금혈이기 때문에 금의 성질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혈로 되어있으며 폐경의 수성, 즉 신기(腎氣)의 문호는 척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목성의 혈을 정혈, 화성의 혈을 형, 토성의 혈을 유혈, 금성의 혈을 함곡이라 부른다. 이상은 육장 즉 음경에 대한 것이고 육부, 즉 정(井), 영(榮), 유(俞), 경(經), 함(合) 오행의 배열은 정은 금, 형은 수, 유는 목, 경은 화, 함은 토(土)로 되어 있다. 즉 음경에서는 목, 화, 토, 금, 수의 순으로 배열되었고, 양경에서는 금, 수, 목, 화, 토의 순서대로 배열되었

5. 원혈, 극혈, 낙혈, 모혈, 유혈

(1) 원혈 : 자연치유력을 증가시키는 혈이다.

삼초란 상, 중, 하의 삼초를 말한다. 초자는 볶는다는 뜻으로 음식물에 열을 가하여 이것을 부수고 식혀서 소화시켜 영양분을 만드는 곳이다. 여기서 생긴 것을 위기(胃氣)라고 한다. 이것이 선천의 기혈을 받아서 영위가 되고 다시 제하에 있는 신간의 선천의 원기를 받아서 삼초의 원기가 된다.

삼초의 원기는 전신을 순환하면서 인체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며 삼초의 작용을 맡은 경락은 삼초경이다. 그러므로 각 경락에서 삼초의 원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원혈이며, 질병에 대하여 강한 투병력을 갖고 있으므로, 자연치유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원혈을 써서 삼초의 원기를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전에 [오장육부에 병이 있으면 그 원혈을 쓰라]하였다. 예를 들면 위경의 병일 때는 원혈인 충양, 대장경의 병일때는 그 원혈인 함곡에 시술하라는 말이다. 이 원혈은 양경에서는 독립되어 있지만 음경에서는 유도혈과 겸하고 있다.

그리고 원혈의 위치는 대체로 손에는 수근관절 부근이고 발에는 족관절 부근에 있다.

(2) 극혈 : 급성병에 잘 듣는 혈이다.

극이란 틈이라는 뜻으로 그 틈이 난 곳에 기혈이 모인다는 것이다. 특히 급성병에 기가 응결되어 딱딱해진다든가 또는 혈이 모여서 혈락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런 때는 직자를 하여 강력한 자극을 주던지, 삼능침으로 사혈하면 잘 듣는 혈이다. 치효가 속히 나타나는 혈이므로 경혈에 생긴 급성병에는 그 경락의 극혈을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적다. 극혈은 다음과 같은 질환에 특효가 있다.

- 폐경-공취 : 각혈, 치출혈
- 신경-수천 : 월경통, 월경곤란, 자궁탈
- 간경-중도 : 자궁출혈, 산기
- 심경-음극 : 심통, 전간
- 비경-지기 : 당설
- 심포경-극문 : 심장병, 늑간신경통, 신경성 심계항진
- 대장경-온류 : 감기, 치통
- 담경-외구 : 전근, 소아축의
- 소장경-양노 : 목현, 이명
- 위경-양구 : 위통
- 삼초경-회중 : 심통
- 방광경-비양

이 외에도 급성병에도 경락이 생긴 병이면 그 경락의 극혈을 쓰면 잘 듣는다.

(3) 낙혈 : 만성병에 잘 듣는 혈이다.

대개는 본경맥에서 낙맥, 즉 지맥이 나오는 곳에 있는 혈로서 각 경락에 한 혈씩 있다. 이 곳은 그 경락에 생긴 병의 반응이 잘 나타나는 곳으로 경결, 팽창, 또는 압통이 나타났든가 혹은 반대로 그 주위보다 특히 오무라져 있는 경혈이다. 경혈의 작용이 약화되었을 때는 그 부위가 위축되어 탄력이 없어져 보이고 항진되었을 때는 압통, 팽창, 경결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찰에도 중요한 곳이므로 임상적 가치는 물론이요 모든 만성병에 잘 듣는 혈이다.

예를들면 만성위병에는 비경의 낙혈인 공손, 위경의 낙혈인 풍음이 잘 듣는다.

-다음호에 계속-